

# DBpia

## 청도 운문사 작압전 석불좌상과 석조사천왕상에 대한 고찰

A Study on Stone Images of Seated Buddha and Four Guardian Kings  
Enshrined in Jakapjeon Hall at Unmunsa Temple

---

저자 (Authors)	최성은 Choe, Song-eun
출처 (Source)	<a href="#">신라사학보</a> , (50), 2020.12, 395-434 (40 pages) <a href="#">SILLASAHAKPO</a> , (50), 2020.12, 395-434 (40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신라사학회</a>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Silla History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510851">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510851</a>
APA Style	최성은 (2020). 청도 운문사 작압전 석불좌상과 석조사천왕상에 대한 고찰. <a href="#">신라사학보</a> , (50), 395-434.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1/11 11:08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 소속 사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청도 운문사 작압전 석불좌상과 석조사천왕상에 대한 고찰\*

최 성 은\*\*

I. 머리말	III. 작압전 석조사천왕상과 석불좌상의 편년과 배치
II. 운문사 창건과 중건: 신라하대~ 고려시대	IV. 맺음말

## 【국문초록】

운문사 작압전에 봉안되어 있는 석불좌상과 석조사천왕상은 지금까지 태조 왕건의 후원에 의해 청대 4년(937)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것은 『삼국유사』 「보양이목조」에 의거한 것으로서, 당에서 귀국하여 봉성사에 머물던 보양조사가 태조 왕건에게 전술의 비책을 알려줌으로써 그와 각별한 인연을 맺게 되고, 이후 보양조사가 대작감사로 옮겨 무너진 전탑(黃塔)을 다시 세우고 주석하던 중, 삼국통일을 완성한 태조가 밭 500결을 하사하고 ‘운문선사’라고 사액하여 운문선사가 크게 중창되었다는 내용에 근거하여 그 시기를 조성시기로 이해한 것이다. 그런데 작압전의 해체수리 과정에서 발견된 납석제 사리호의 명문에 의하면 咸通 6년(경문왕 5년, 865)에 탑의 수리가 이루어 졌으며 원래의 작압에서 지금은 ‘작압’이라는 현판이 달린 목조건물의 형태로 바뀐 작압전의 전신이 塼塔이었음이 알려져 있다.

작압전의 사천왕상은 신라하대 석탑과 승탑에 부조된 사천왕상들과의 비교를 통해, 860~880년대에 조각된 것으로 추정되며 전탑 남면과 북면의 초층 탑신 탑문의 좌우에

\* 이 논문은 2019년 덕성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덕성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

주요 논저 : 2020, 「평원·영양왕대 고구려 불교조각에 대한 고찰」 『先史와 古代』 63 : 2014, 「『삼국유사』를 통해본 芬皇寺의 중대 신라 불교미술」 『文化財』 47-4 : 2013, 「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 일조각 : 2013, 「百濟 7세기 塑造像의 樣相과 傳播-신라 및 일본 白鳳期 소조상과 관련하여-」 『百濟文化』 49.

봉안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네 구의 사천왕상의 크기는 두 구는 151-152cm, 두 구는 161~162cm 이므로 두 구가 한 쌍이 되어, 동방 지국천왕-남방 증장천왕-서방 광목천왕-북방 다문천왕이 시계 방향 순으로 배치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천왕상과 같은 시기에 조성되었다고 생각되어 왔던 석불좌상은 2007년 얼굴에 덮혀 있던 호분이 제거되고 보수되어 原 모습을 알 수 없으나, 광배와 대좌의 형태면에서 신라하대~고려초기 불상으로는 편년하기 어려운 요소가 발견된다. 가로(橫)로 긴 육각대좌는 상대 연화좌의 연화문에 여의두문과 유사한 세 개의 꽃머리 장식이 새겨져 있고, 나말여초 석불 대좌에서 발견되는 중대석 받침(괴입석)이 보이지 않으며, 광배는 2중원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구성으로 化佛과 초화문으로 장식된 나말여초 석불의 광배와는 차이가 크다. 조형적인 분석을 통해서 석불좌상의 조성시기는 고려중기 왕실과 긴밀하게 활동했던 학일선사가 운문사로 하산하였던 12세기 전반 무렵일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기는 고려 왕실을 중심으로 도선에 대한 현창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때인데, 운문사의 전답이 청도지역의 비보사탑으로 새롭게 보수되고 사찰의 중창이 크게 일어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운문사, 보양조사, 대작갑사, 전탑, 작압전, 작탑, 사천왕상, 석불좌상, 학일선사

## I. 머리말

운문사 작압전에는 본존 석조여래좌상과 함께 ‘사천왕상 석주’로 불리는 석조 사천왕상이 봉안되어 있다(도1). 이 상들은 고려초에 보양선사가 고려태조 왕건의 후원으로 前身사찰이 작압사인 운문사를 중창하면서 조성된 고려초기 불교 조각으로 이해되어 왔다.<sup>1)</sup> 이 편년은 그 동안 별다른 이견이 없이 받아들여졌는데, 이는 『삼국유사』기록에 의존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말여초기 불교조각이 지역에 따라 다양하여 뚜렷한 조형적 특징의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1) 최성은, 2003, 「開泰寺 石造三尊佛立像 研究-새로운 統一王朝 高麗의 出現과 佛教彫刻-」 『美術史論壇』 16·17, 85쪽 및 주 21 : 2013, 『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 一潮閣, 28쪽 및 주 21.



〈도 1-1〉 운문사 작업전 전경



〈도 1-2〉 운문사 작업전 내부 전경

그러나 알려진 것처럼 작업전의 전신은 ‘鶴塔’이라고 하는 오층의 전탑이었으며, 운문사가 초창 이래 고려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여러 차례 중창을 거듭하여 작탑이 殿閣으로 바뀌고, 그 위치에도 변화가 있어 석불좌상과 사천왕상을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라 운문사 중창 시기인 고려초기로 편년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석조여래좌상과 사천왕상의 원 위치가 지금의 작업전의 前身인 작탑이었는지 여부에 대해 유추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겠지만, 본고에서는 미술사적인 분석을 통해 석조여래좌상과 사천왕상의 조성시기를 검토하고, 이 상들의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해보고자 한다.

## II. 운문사 창건과 중건: 신라하대~고려시대

운문사의 창건과 중창에 관해서는 『삼국유사』 의해편 「보양이목」조에 그 대강의 사정을 엿볼 수 있다.<sup>2)</sup> 「보양이목」조에 관해서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바 있으므로<sup>3)</sup> 여기서는 운문사의 전신인 대작갑사와 보양조사에 관한 아래

2) 『三國遺事』 권4, 義解5, 「寶壤梨木」條.

3) 김윤근, 1983, 「麗代之 雲門寺와 密陽 · 淸道 地方」 『三國遺事研究 上』, 영남대출판부: 2001, 『한국 중세 영남불교의 이해』, 영남대학교출판부, 112-133; 金吉雄, 1990, 「雲門寺 鶴鴨殿出土 舍利具에 대하여」 『慶州史學』 9, 59-84쪽; 裊象鉉, 1997, 「高麗時代 雲門寺의 寺院田 經營」 『한국중세사연구』 4, 68-101쪽; 이재범, 2012, 「『삼국유사』 ‘보양이목’조의 검토」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33, 103-123쪽; 曠승훈, 2014, 「고려시대

의 내용만을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 ㉠ …(전략)… 신라시대 이래로 이 고을(청도군)의 절인 작갑사 이하 중소 사원들은 삼한이 어지러울 때 大鵠岬, 小鵠甲, 所寶岬, 天門岬, 嘉西岬의 다섯 갑사가 모두 파괴되어 없어지고 다섯 갑의 柱를 대작갑사에 모아 두었다.<sup>4)</sup>
- ㉡ 이 절의 시조인 知識(앞의 글에서는 보양이라고 하였다)이 중국에서 불법을 전해받고 귀국하던 중에 서해 용궁에 초대되어 용왕으로부터 ‘지금 삼국이 소란하여 불교를 신봉하는 임금이 없는데, 자신의 아들과 본국에 돌아가서 ‘작갑’에 절을 세우면 혼란한 시기에 도적을 피할 수 있으며, 수년 뒤에 불법을 수호하는 현명한 임금(護法賢君)이 나타나 삼국을 평정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용왕의 아들인 이목을 데리고 귀국했다.<sup>5)</sup>
- ㉢ 이곳에 이르자 스스로 圓光이라 칭하는 노승이 홀연히 나타나 인계를 건네주고 사라졌다 …(중략)… 이에 보양조사가 폐사를 부흥하려고 북쪽 고개 위에 올라가 바라보니 뜰에 오층의 黃塔이 있으므로 내려와서 찾아보니 자취가 없어졌다. 다시 올라가 바라보니 까치떼가 땅을 쪼고 있었다. 이에 해룡이 작갑이라 말했던 것이 생각나서 여기를 파보니, 과연 옛 벽돌(塼)이 무수히 나왔다. 이것을 모아서 높이 쌓으니 탑이 세워지고 남은 벽돌이 없었으므로 여기가 전대의 가람터였음을 알게 되었으며, 절을 세워 살면서 절 이름을 작갑사라 하였다.<sup>6)</sup>
- ㉣ 얼마 후 태조가 삼국을 통일하고 조사가 이곳에 와서 절을 짓고 산다는 말을 듣고 5갑의 밭 5백결을 합하여 하사하고 창태 4년(937) 정유에 ‘운문선사’라고 사액하고 가사의

운문사 창건연기의 변천과 역사적 의의」 『韓國史學史學報』 30, 9~43쪽 ; 오세덕, 2017, 「운문사의 遺物과 記錄을 통해 본 伽藍의 변화상」 『新羅文化』 50, 245~68쪽 ; 문명대, 2018, 「운문사(雲門寺) 작갑전(鵠岬殿) 석조(石造) 석가불좌상(釋迦佛坐像)과 사천왕상(四天王像)의 도상연구」 『講座美術史』 50, 87~107쪽 ; 김영옥, 2020, 운문사 전탑의 구조와 석조여래좌상 및 사천왕석주의 배치연구」 『大丘史學』 140, 1~8쪽 참조.

- 4) “羅代已來，當郡寺院，鵠岬已下中小寺院，三韓亂亡間，大鵠岬·小鵠岬·所寶岬·天門岬·嘉西岬等五岬皆亡壞，五岬柱合在大鵠岬。” 『三國遺事』 권4, 義解 5 寶壤梨木.
- 5) “祖師知識(上文云寶壤)，大國傳來還，次西海中，龍邀入宮中念經，施金羅袈裟一領，兼施一子璃目，爲侍奉而追之，囑曰，于時，三國擾動，未有歸依佛法之君主，若與吾子歸本國，鵠岬創寺而居，可以避賊，抑亦不數年內，必有護法賢君，出定三國矣。言訖相別而來還。” 『三國遺事』 권4, 義解 5 寶壤梨木.
- 6) “及至茲洞，忽有老僧，自稱圓光，抱印櫃而出，授之而沒。(按，圓光以陳末入中國，開皇間東還，住嘉西岬而沒於皇隆，計至清泰之初，無慮三百年矣。今悲嘆諸岬皆廢而喜見壤來而將興，故告之爾。)於是，壤師將興廢寺，而登北嶺望之，庭有五層黃塔，下來尋之則無跡。再陟望之，有群鵠啄地。乃思海龍鵠岬之言，尋掘之，果有遺塼無數。聚而蘊崇之，塔成而無遺塼，知是前代伽藍墟也，畢創寺而住焉，因名鵠岬寺。” 『三國遺事』 권4, 義解 5 寶壤梨木.

영험을 받들게 하였다.<sup>7)</sup>

- ㉔ …(중략)… 처음 당에서 돌아와서 먼저 추화 봉성사에 있었다. 마침 태조가 동쪽을 정벌하는 길에 청도지경에 이르렀는데, 산적들이 犬城에 모여 교만하게 항복하지 않으므로 태조가 산 밑에 이르러 보양에게 손쉽게 진정시킬 계책을 물으니, 조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무릇 개리는 짐승은 밤을 맡았고 낮을 맡지 않았으며, 앞은 지키되 뒤는 잇고 있으므로 마땅히 낮에 그 북쪽을 쳐야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태조가 그 말에 따랐더니, 과연 도적이 패하여 항복하였다.<sup>8)</sup>
- ㉕ 태조가 그 신통한 계책을 가상히 여겨 해마다 가까운 고을의 조 50석을 주어 향화를 받들게 하였다. 이 때문에 절에는 두 성인 태조와 보양의 진용을 안치하고, 이로 인해 봉성사라고 이름 지었다. 뒤에 작갑사로 옮겨 절을 크게 짓고 세상을 마쳤다.<sup>9)</sup>

위의 글은 「보양이목」조에서 운문사와 관련된 내용만을 발췌한 것인데, 요약하면, 보양조사는 당 유학에서 귀국하여 처음에는 추화 봉성사에서 머물다가,<sup>10)</sup> 폐사가 된 대작갑사로 옮겨 왔으며, 나말여초의 혼란기에 폐사된 대작갑사, 소작갑사, 소보갑사, 천문갑사, 가서갑의 다섯 갑사의 柱가 대작갑사에 옮겨져 있었다. 대작갑사를 증건하려 할 때, 보양은 ‘황답’의 환영을 보았고, 까치 떼가 쪼고 있던 땅 속에서 묻혀있던 벽돌을 찾아 전답을 다시 세웠다. 삼국통일의 대업을 완성한 후에 태조 왕건은 5갑의 전 500결을 하사하고 ‘운문선사’라고 사액하였는데,<sup>11)</sup> 이 시기 운문사가 크게 증창되었다는 것이다.<sup>12)</sup>

7) “未幾，太祖統一三國，聞師至此創院而居，乃合五岬田東五百結納寺，以清泰四年丁酉，賜額曰雲門禪寺，以奉袈裟之靈蔭。”『三國遺事』 권4, 義解 5 寶壤梨木.

8) “初師入唐廻，先止于推火之奉聖寺，適太祖東征至清道境，山賊嘯聚于犬城(有山岑臨水峭立，今俗惡，其名改云犬城)，驕傲不格，太祖至于山下，問師以易制之述，師答曰，夫犬之爲物，司夜而司晝，守前而忘其後，宜以晝擊其北。祖從之，果敗降。”『三國遺事』 권4, 義解 5 寶壤梨木.

9) “太祖嘉乃神謀，歲給近縣租五十碩，以供香火，是以寺安二聖眞容，因名奉聖寺。後遷至鶴岬，而大創終焉。”『三國遺事』 권4, 義解 5 寶壤梨木.

10) 推火 奉聖寺는 경남 밀양 산의면 금곡리 뒷산의 탑골이라는 절터로 비정된다. 이곳에서 ‘奉聖寺’ 銘명 기와편이 발견되어 奉聖寺址임이 확인되었다. 옥개석과 기단면석 등의 석탑부재가 있으며 기와편, 토기편 등이 다수 출토되었다고 한다. 李雲成, 1964, 「推火 奉聖寺에 대하여」 『考古美術』 5권 9호, 『考古美術』 100권 合集 上, 574~575쪽 참조.

11) 고려 태조는 새로운 사찰명을 내려줌으로써 지금까지 신라의 대작갑사로서 이어져 온 사찰 이미지 쇄신하려 했던 듯하다.

12) 「보양이목조」의 내용을 보면, 작갑사가 보양의 시기와 와서 새롭게 증창된 것이 분명하

岬은 ‘꽃(산허리, 산과 산 사이)을 가리키며 다섯 갑사는 운문산맥 준령의 험준한 협곡지대에 세워져 있던 사찰이었다.<sup>13)</sup> 이 사찰들은 청도, 밀성(밀양), 경주, 언양의 접경지역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 일대는 교통상의 요지일 뿐 아니라 군사방어적인 면에서도 중요하였으므로<sup>14)</sup> 일찍부터 사찰들의 경제적 기반이 구축되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따라서 당시 대작갑사에 옮겨졌던 柱는 건축용 기둥이거나 資材라기 보다는 사원의 창건경위, 승려들의 인적사항, 전담의 시납 등을 적어놓은 柱貼 문서로 해석하는 것<sup>15)</sup>이 더 설득력 있을 것 같다. 오작갑사의 사찰규모를 엿볼 수 있는 자료는 전하지 않지만, 소작갑사지로 비정되는 박곡리 미륵당에 전해오는 항마촉지인 석불좌상은<sup>16)</sup> 훼손이 심하여 세부를 살펴보기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대한 체구를 통해서 상당한 크기의 불전에 봉안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17)</sup> 그렇다면 오작갑의 중심사찰인

다. 그러나 당시 고려 태조가 시납한 500결의 토지는 오갑사에서 이전부터 소유했던 것을 모두 합해서 사액사원인 운문사의 소유를 합법적으로 인정해준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김윤근, 2001, 앞의 책, 120쪽). 오늘날 운문사에 전하고 있는 삼층석탑 2기와 석등과 같은 석조물들은 고려초기에 건립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 13) 『운문사사적』을 비롯한 여러 조선시대 문헌에 따른 오갑사의 위치를 보면, 所寶甲은 대작갑(운문사)에서 북쪽 8리쯤에 있다고 했는데, 운문면 梧津里 梧耳마을 입구 雲門川邊의 新羅瓦片 산포지역인 것으로 추정된다. 天門岬은 남쪽 7리쯤에 있었다고 하는데, 운문천을 따라 남쪽인 상류로 거슬러 가면 雲門山 分水와 迦智山 分水가 합류하는 곳(속칭 天門洞)에 있는 절터로 추정된다. 小鶴岬은 『운문사사적』에는 大悲岬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시기에 개칭된 것으로 짐작된다. 대비갑의 위치는 『淸道郡邑誌』佛宇條(규장각 소장)에 따르면 동쪽 80리라고 하는데, 금천면 珀谷洞 마을로 비정된다. 嘉瑟岬은 운문사의 동쪽 9천보쯤에 加西峴(嘉瑟峴) 북동에 있는 절터라고 하는데, 이 사지는 현재 운문사 동쪽 약 5km지점인 三溪里의 동쪽 계곡 상류 文福山麓에 속칭 ‘절터김(절터끼미)’이란 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곳에는 10여기의 초석이 남아있고, 여기서 동남쪽으로 5km 내려오면 운문령이 있어 가솔현(가서현)이 지금의 운문령임을 알 수 있다. 김윤근, 2001, 「麗代의 雲門寺와 密陽·淸道 地方」 『한국 중세 영남불교의 이해』, 영남대학교출판부, 118~119 및 119의 <그림 1> 五岬의 위치; 尹容鎭 外, 1993, 『嘉瑟岬寺址 地表調査 報告書』, 慶北大學校博物館·淸道郡, 15~85쪽 참조.

14) 裴象鉉, 1997, 앞의 논문, 101쪽 참조.

15) 김윤근, 2001, 앞의 책, 116~120쪽 참조.

16) 尹容鎭 外, 1993, 앞의 책, 67~69쪽 참조.

17) 이 석불좌상은 무릎 폭 126.8cm, 발 크기 39cm, 손 길이가 31.5cm에 이른다. 오른손 손가락들은 後補된 것이지만 손끝 부분은 남아있다. 광배는 깨진 상태로 일부분만 보호각 앞에 놓여 있는데, 광배 하단에 커다란 花紋이 2개 새겨지고 꽃가지가 좌우로 뻗어 올라

대작감사의 규모는 필시 이보다 더 컸을 것이다.

그런데 1987년 10월 작업전의 해체수리 과정에서 석불좌상의 대좌 아래에서 심초석이 발견되었고 그 안에 봉안된 사리구가 수습되었다.<sup>18)</sup> 작업전 심초석에서 발견된 사리구는 통일신라부터 조선후기까지 여러 시기의 납입품이 섞여 있었으므로<sup>19)</sup> 전답이 여러 차례 중수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가운데 특히 납석제 사리호(도2)에는 咸通 6년(경문왕 5년, 865)의 새겨진 중수명문이 있어(도3) 보양조사의 중창 이전부터 전답이 있었던 것이 분명해진다.



〈도 2〉 운문사 작업전 납석제 사리호, 통일신라 865년, 경북 청도

〈도 3〉 운문사 작업전 납석제 사리호 뚜껑 안쪽 명문

명문 사리호의 존재는 함통 6년(865)에 전답이 중수되었으며 그 이전에 이미 전답이 건립되어 있었음을 알려준다. 신라하대 경문왕 5년(865)에 초창 혹은 중창된 대작감사가 ㉔의 내용에서처럼 고려초에 이르러 보양조사에 의해 다시 중창된 것은 운문사의 현존 문화재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와 함께

가는 특이한 형태를 보인다. 불상의 조성시기는 나말여초기로 생각된다.

18) 金吉雄, 1990, 앞의 논문, 59~84쪽. 목탑의 심초석과 같은 형태의 큰 돌에 사리공을 뚫어 그 안에 사리호를 안치한 것은 안동 임하사 칠층전탑의 사리기 봉안방식과 유사하다. 안동대학교박물관, 1988, 『臨海寺塔塔址』, 70~73쪽.

19) 사리구는 咸通 6년명 납석제盒, 청동제 사리병, 영락통보 銀錢(明1403-1424년 주조), 崇德 7년(1642) 명 黃銅舍利盒蓋, 원형의 大小 환옥(5점), 소석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金吉雄, 1990, 앞의 논문, 65쪽 ; 한정호, 2011, 『통일신라시대 蠟石製舍利壺의 발생과 전개에 대한 고찰』 『古文化』 77, 71~72쪽 ; 최웅천, 2018, 『雲門寺 소장 불교공예품의 현황과 특징 고찰』 『講座美術史』 50, 152~154쪽 ; 김영옥, 2020, 앞의 논문, 9~11쪽 참조.

살펴야 할 것은 고려 중기에 들어와서 또 다시 운문사의 寺格이 크게 높아지는 기회가 있었다는 점이다. 바로 운문사에 碑가 전하는 圓應國師 學一(1052~1144년)이 운문사로 下山했던 시기이다.

학일선사는 선종승려로 治病, 홍수, 가뭄 등 災變을 구제하는 뛰어난 法力으로 숙종, 예종, 인종의 예우를 받아, 法住寺, 迦智寺, 龜山寺에 주석하였으며, 이후 개경의 내제석원, 안화사에 머물며 道力으로 왕실을 가까이에서 도왔다. 천태종으로 전향하라는 대각국사 의천의 요청을 거절하고 선종을 고수하였으며 인종 즉위 초에는 왕사에 책봉되었다.<sup>20)</sup> 운문사로 물러나기를 청하였으나 인종의 만류로 3년간 부평 경암사에 머물다가 마침내 인종 7년(1129) 운문사로 하산하였다.<sup>21)</sup>

학일선사가 운문사에 머문 시기에 운문사는 왕실의 후원으로 매우 번창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그가 왕사가 되면서 畵 200결, 國奴婢 500인이 시납된 점을 꼽을 수 있다. 앞의 ④에서 보이듯이, 이미 고려초에 오작갑의 토지를 포함한 토지 500결이 지급된 상황에서 전답과 노비가 늘어나 더욱 탄탄한 경제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또한 이 징표로 '장생포'로 추정되는 석비가 세워졌으며, 절 북쪽 3리에 35칸의 三寶院이 있었고 절 동쪽 3리쯤에는 13칸의 鹽城庫가 있었다.<sup>22)</sup> 경상도 지역 선종불교의 중심사찰로서 막강한 寺勢를 가졌던 운문사에서 학일선사의 주석 이후에 대규모 중창불사가 이루어졌을 것을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조선후기에 간행된 『雲門寺事蹟』(1718)에 기록된 운문사 최전성기의 27여동에 달하는 여러 불전과 전각들은 고려시대 운문사의 면모를 어느 정도 짐작하게 한다.<sup>23)</sup> 한편, 2006년 대웅보전 해체수리 과정에서 발견된 「順治十二年大雄殿重建伽藍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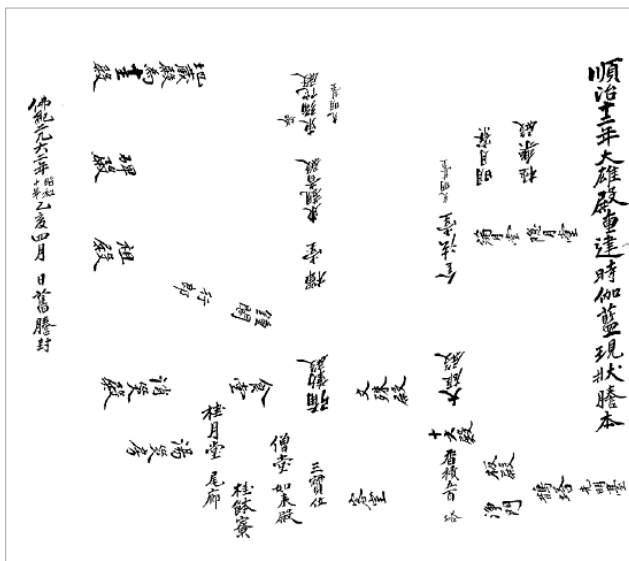
20) 당시 왕사와 국사를 화엄종과 유가종 승려가 독점하다시피 하던 시기에 선종승려로서 왕사가 되고 입적 후에는 국사로 추증된 학일의 행보가 무신집권 이후 선종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許興植, 1986, 「선종의 부흥과 간화선의 展開」 『高麗佛敎史研究』, 일조각, 466~469쪽; 裴象鉉, 1997, 앞의 논문, 7~77쪽 참조.

21) 李智冠, 1996, 「淸道 雲門寺 圓應國師 碑文」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高麗篇 3)』, 伽山佛敎文化研究院, 259~297쪽.

22) 1977, 『慶尙北道淸道郡東虎踞山雲門寺事蹟』(1718), 雲門寺志, 亞細亞文化社, 17쪽; 金潤坤, 앞의 논문, 1982, 166~167쪽; 裴象鉉, 1997, 85~86쪽; 오세덕, 2017, 「운문사의 遺物과 記錄을 통해 본 伽藍의 변화상」 『新羅文化』 50, 256쪽.

23) 약 27기의 전각이 언급되고 있다. 大雄殿, 靈山殿, 觀音殿, 간향전, 심검당, 『慶尙北道淸道郡東虎踞山雲門寺事蹟』(1718), 19~20쪽; 洪思俊, 1962, 「雲門寺의 鵲鴨殿」 『美術資料』 5, 11쪽.

狀騰本」(도4)는 1655년에 대웅보전이 중수되기 이전의 가람배치를 알려준다.<sup>24)</sup> 이 가람배치에서도 30여동의 전각이 보이는데, 앞의 『운문사사적』에 기록된 전각들과 명칭과 배치가 일치하지 않는 점이 보이며, 특히 후술할 바와 같이 ‘작탑’에 대한 표기에 차이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도 4〉 운문사 順治 12년(1655) 대웅전중건시기가람현상도본, 경북 청도

### III. 작업전 석조사천왕상과 석불좌상의 편년과 배치

앞 장에서 살펴본 운문사의 전신 ‘작감사’의 흔적을 담고 있는 건물로 알려져 있는 작업전(도5)은 정면 1칸, 측면 1칸 규모의 건물로 관음전 옆에 위치하고 있다. 1935년 이전에 촬영된 사진을 보면 벽돌을 쌓아올린 전탑의 형태로 瓦葺 건물에 정면이 넓고 측면이 좁은 형태이다. 편역에는 ‘鵲岬’이 아닌 ‘鵲鴨’이라 쓰

24) 文化財廳, 2007, 『雲門寺 大雄寶殿 修理 實測 報告書』, 147쪽 〈그림-3〉; 조선 후기 운문사 전각의 변화와 석물의 이동에 대해서는 오세덕, 2017, 앞의 논문, 258~261쪽 참조



〈도 5〉 작압전, 1935년  
이전(洪思俊, 1962에서 전재)

여 있으며, '庚戌八月日'이라는 干支가 있어서 1910년에 쓴 것으로 추정된다.<sup>25)</sup>

2006년의 대웅보전 해체수리 공사중에 발견된 「순치십이년대웅전중건가람현상등본」(도4)에는 대웅전 남서쪽에 '작답'이라고 표기되어 있어 그 때까지 탑의 형태가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26)</sup> 「가람현상등본」과 함께 발견된 소화 10년(1935) 「운문사 가람배치도」(도6)를 보면 명칭이 '작압전'으로 바뀌어져 있고, 사역의 남쪽 정문 옆에 작압전이 배치되어, 작압전-금법당-대웅전이 남북 축선상에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27)</sup> 작압전은 1941년 사역의 남서쪽으로 옮기면서 목조건물로 지어졌는데,<sup>28)</sup> 1962년 조사 때는 현재의 위치가 아닌 사찰 경내

동쪽의 관음전 옆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도7).<sup>29)</sup> 그렇다면 작압전은 1962년 이후에 지금의 위치로 옮겨지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현재 작압전에는 석불좌상이 본존으로 봉안되어 있으며 그 좌우에 사천왕상이 2구씩 세워져 있다.<sup>30)</sup> 전술한 바와 같이, 1987년 작압전 해체복원 때 석불좌상의 대좌 아래에서 납석제 사리호가 발견되었고<sup>31)</sup> 그 뚜껑 안쪽에 「咸通六年塔治節舍利二身」이라는 명문이 음각되어 있었으며, 중앙에는 「여훈(犁訓)」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도3).<sup>32)</sup> 이 명문은 「함통 2년에 탑을 수리했고 당시 사리

25) 운문사지 간행위원회, 2018, 『운문사지』, 174~175쪽.

26) 오세덕, 2017, 「운문사의 遺物과 記錄을 통해 본 伽藍의 변화상」 『新羅文化』 50.

27) 『雲門寺 大雄寶殿 修理 實測 報告書』, 148쪽 (그림-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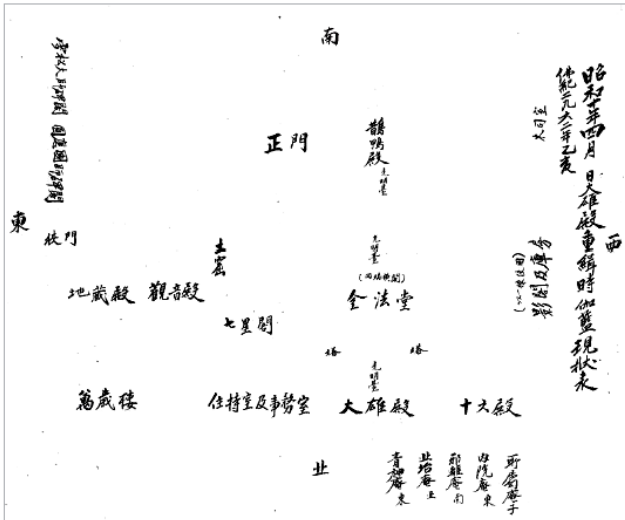
28) 「自願喜捨金六百圓也 昭和十六年辛巳七月初五日」, (홍사준, 1962, 앞의 논문, 12쪽).

29) 1962년 석등보수 자문으로 운문사를 방문하셨던 홍사준선생님이 만난 주지스님은 10세에 운문사 소속의 내원암에서 출가하셨고 운문사에서 평생을 지낸 분으로 작압전의 원 위치가 당시 요사채의 서쪽에서 세 번째 방 자리(昭和15년 배치도의 위치)에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당시 만세루에 걸려있던 「鵲鴨殿建築及丹青記」를 통해 昭和 16년(1941)에 목조건물로 지어진 것을 알 수 있다(홍사준, 1962, 앞의 논문, 12~1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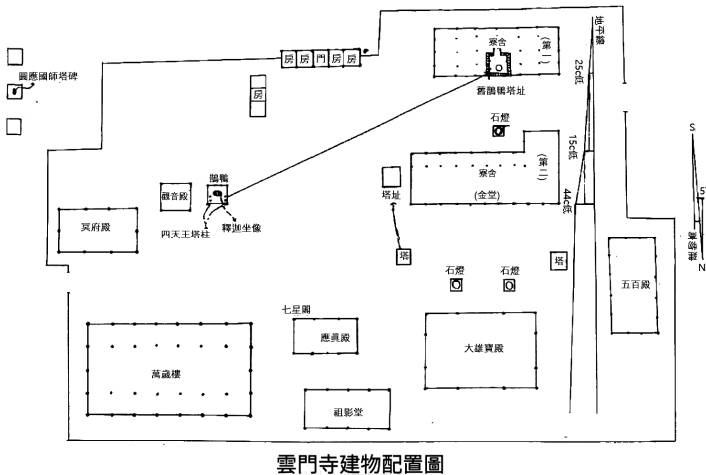
30) 운문사 사천왕상에 대해서는, 문명대, 2018, 앞의 논문, 95~99쪽 참조.

31) 사리장엄구가 발견된 사리공이 있는 석재는 운문사 원웅국사 비각 옆에 놓여있다.

32) 그 동안 이것을 세 글자로 판독하여 「利生訓」으로 읽거나(김길웅, 1987, 앞의 논문, 65~66



<도 6> 1935년 가람배치도, 경북 청도



雲門寺建物配置圖

<도 7> 1962년 가람배치도 (洪思俊, 1962에서 전재)

쪽), '刻生訓'으로 읽었는데(한정호, 2011, 앞의 논문, 71~72쪽), '犁訓'의 두 글자로 읽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된다.

2과를 넣었으며” 발원한 인물이 ‘犁訓’이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작압전의 前身인 博塔이 운문사의 전신인 대작감사에서 세워졌으며, 경문왕 5년(865)에는 보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준다.

## 1. 사천왕상의 현상과 제작시기

### 1) 사천왕상의 현상

작압전의 석조사천왕상은 길고 좁은 판석에 부조되었는데, 각각의 높이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작압전 건립이전에 사천왕상이 여러 차례 옮겨져 현재 배치된 방향에 따른 존명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단 보탑을 왼손에 들고 있는 천왕상을 시작으로 각 사천왕상의 도상과 현상을 살펴보겠다.

#### ① 寶塔을 지물로 든 천왕상(도8)

먼저 보탑을 든 천왕상을 살펴보면, 전체높이 161.5cm, 폭 48cm, 상 높이가 146cm로 머리 뒤로 둥근 원형의 광배가 얇게 양각되어 있고, 두부에 비해 신체가 긴 편이며 얼굴의 생김은 부드럽고 사실적이다. 상투를 올린 머리에는 花冠을 쓰고 있으며 화관에서 좌우로 뻗은 띠자락이 바람에 휘 날린다. 목에는 頸護를 두르고 상체에는 胸甲을 입었으며 半袖 소매의 둥근 끝단이 표현된 왼팔을 위로 올려 다층탑을 손에 받쳐 들고 오른손은 아래로 내려서 손가락을 밖으로 뻗고 있다. 짧은 腰甲 아래에는 무릎길이의 表袴와 길게 정강이 뒤로 길게 늘어진 치마(裾)를 입고 있다. 치마에서 밖으로 늘어진 띠자락이 요갑의 중앙에서 흘러내리고 무릎부터 발목까지는 脛護를 착용하고 있으며 갑옷에서 늘어진 천의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좌우로 길게 늘어져 있다.<sup>33)</sup> 천왕상이 발을 딛고 있는 야차귀<sup>34)</sup>는 정면향으로 앉아 양어깨로 다문천왕의 작은 두 발을 받치고 오른

33) 사천왕상의 착의형식에 대해서는 심영신, 1997, 「통일신라시대 四天王像 연구」 『美術史學研究』, 25~27쪽; 권강미, 2003, 「統一新羅 四天王像 研究」 『文物研究』 7, 59~60쪽 참조. 운문사 사천왕상의 복각착용에 대해서는, 권강미, 2001, 「統一新羅 四天王像 研究」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1쪽 참조.

34) 사천왕의 대좌(생령좌)로 표현되는 난장이 모습의 존재는 ‘악귀’나 사악한 존재(邪鬼)가 아니라 사천왕을 받들고 불법을 수호하는 ‘夜叉’이다. 임영애, 2011, 「석굴암 사천왕상

손을 올려 천왕의 오른발에 대고 있다.

보탑을 든 천왕상은 북방 多聞天像임은 『陀羅尼集經』(唐 653~654년 阿地瞿多 漢譯)을 통해 알려져 있는데, 이 경전이 한역되기 이전부터 다문천왕이 보탑을 든 예가 隋代 神德寺 사리기 외함의 다문천왕상에서 보인다.<sup>35)</sup> 통일신라시대 사천왕상 가운데 보탑을 지물로 든 상이 북방의 다문천왕상인 예가 다수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서,<sup>36)</sup> 이 상 역시 북방 다문천왕으로 보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도 8〉 보탑을 든 사천왕상,  
운문사 작업전, 경북 청도



〈도 9〉 화염보주를 든 사천왕상,  
운문사 작업전, 경북 청도

의 도상과 불교경전 『강좌미술사』 37, 35~36쪽 참조

35) 神德寺 사리기 외함의 북방 다문천왕상 외에도 서역이나 돈황지역의 보탑을 든 다문천왕이 보이므로 『陀羅尼集經』이 漢譯 이전부터 이 도상이 성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임영애, 2010, 「북방 다문천의 보탑 도상 해석: 도상 형성 원인과 원·고려 이전의 양상」 『미술사와 시각문화』 9, 88~92쪽; 임영애, 2011, 「석굴암 사천왕상의 도상과 불교경전」 『講座美術史』 37, 30~31쪽, 39~40쪽; 朴待南, 李松蘭, 2010, 「중국 隋 仁壽 4년 神德寺 舍利具 연구」 『한국고대사탐구』 6, 201~249쪽 참조.

36) 권강미, 2003, 앞의 논문, 63~65쪽 〈표 4〉 統一新羅 四天王像 持物 및 〈표 5〉 統一新羅 四天王別像 持物 現況; 임영애, 2011, 앞의 논문, 38쪽 〈표 1〉 참조.

② 火焰寶珠를 지물로 든 천왕상(도9)

다음으로 왼손을 위로 올려 화염보주를 들고 있는 천왕상은 전체높이 162cm, 폭 54cm, 상 높이 153cm인데, 머리에는 화관을 쓰고 얼굴은 양 뺨이 통통한 사실적인 모습을 보인다. 양어깨를 감싼 披膊은 小札을 나타내는 짧은 세로 線들로 새겨져 있고 그 위에는 넓은 肩布를 둘러 묶었다. 가슴의 胸甲이 둥글게 처리된 점은 다른 세 구의 천왕상과 다른 점이고, 소매의 가운데가 묶인 半袖의 형태로 볼록한 소매자락에 촘촘하게 주름이 잡힌 표현도 다른 상들과 달리 섬세하게 표현되었다. 허리에는 짧은 세로줄로 끝단이 새겨진 腰甲을 두르고 그 안에 表袴를 입었으며, 치마(裙) 자락이 정강이 뒤로 길게 늘어지고, 다른 천왕상들에 서처럼 두 줄의 양각선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脛護를 착용하고 있다. 이 상에서는 정면향으로 앉은 야차귀가 어깨로 천왕의 작은 두 발을 받치고 있다.



〈도 10〉 감은사 서삼층석탑출토  
금동사리함 남방증장천왕, 통일신라  
682년, 국립경주박물관



〈도 11〉 경주 나원리 오층석탑출토  
금동사리함 남방증장천왕

사천왕상이 화염보주를 지물로 든 예는 경주 감은사지 서삼층석탑 사리장엄구 외함의 남방 증장천왕(도10), 경주 나원리 오층석탑 사리함의 남방 증장천왕(도11), 경주 원원사지 서삼층석탑 북방 다문천왕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두 예는 사리장엄구에서 보이는 도상이고 원원사지 서삼층석탑의 사천왕상 가운데 북방 다문천왕의 지물이 화염보주인 점은 신라하대로 내려오면서 사천왕상의 지

물에 대해 정해진 도상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sup>37)</sup>

③ 三鈷杵를 지물로 든 천왕상(도12)

다음으로 오른손에 삼고저를 들고 왼손으로는 천의자락을 쥐고 있는 천왕상은 전체높이 151cm, 상높이 140cm로 머리의 화관이 화려하고 가름한 얼굴에는 치켜 올라간 눈썹과 정면을 응시하는 두 눈, 뚜렷한 이목구비가 섬세하게 조각되었다. 양 어깨를 감싼 小札의 披膊 위에 肩布를 둘렀고<sup>38)</sup> 가슴의 胸甲은 방형의 음각선으로 구획된 단순한 형태이다. 허리에는 끝단에 세로선으로 장식된 腰甲을 입었고 그 안에 입은 表袴와 치마(裙) 자락이 다리 뒤로 발목까지 길게 늘어져 있다. 정강이에는 脛護를 착용하였고, 대퇴부 사이로 치마에서 늘어진 띠가 리본형으로 묶인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몸을 오른쪽(向右) 향한 자세로 작은 두 발로는 야차귀의 머리와 엉덩이를 딛고 서 있다.

이 천왕상처럼 통일신라 사천왕상 가운데 삼고저나 독고저를 지물로 들고 있는 예는 적지 않다. 독고저는 길고 둥근 봉 형태의 지물로 한쪽 끝이 창끝처럼 뾰족하고 반대쪽은 둥글거나 장식이 있으며 삼고저는 삼지창 같은 머리가 달려 있는 형태이다(도



〈도 12〉 삼고저를 든 사천왕상, 운문사 작업전, 경북 청도

13). 아래의 13구의 천왕상을 통해서 볼 때, 독고저 또는 삼고저를 들고 있는 천왕상들을 보면 동방 지국천왕이 2구, 서방 광목천왕이 6구, 남방 증장천왕이 5구이다.<sup>39)</sup> 석탑의 경우, 도괴된 상태에서 다시 세울 때 간혹 원래 방향에서 바뀌게

37) 권강미, 2003, 앞의 논문, 63~65쪽 〈표 4〉 統一新羅 四天王像 持物 및 〈표 5〉 統一新羅 四天王別像 持物 現況 참조. 이 연구에서 조사된 통일신라 석탑, 사리기, 승탑, 석등에 조각된 사천왕상의 다문천왕 35구 가운데 27구가 보탑을 지물로 들고 있다.

38) 사천왕상의 착의형식에서 견포의 표현은 吐瀉의 요소가 반영된 당 후기의 양식으로 이해되고 있다. 권강미, 2003, 앞의 논문, 68쪽 참조.

39) 권강미, 2003, 앞의 논문, 63~65쪽 〈표 4〉 統一新羅 四天王像 持物 및 〈표 5〉 統一新羅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수치가 반드시 정확한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삼고저 또는 독고저를 든 천왕이 광목천왕이나 증장천왕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천왕상이 들고 있는 삼고저는 한쪽 방향으로만 세 갈래의 갈고리가 있는데 비해, 작압전 천왕상이 들고 있는 삼고저는 양쪽 방향으로 갈고리가 달려 있는 형태인데, 이런 형태의 삼고저는 경주 남산리사지 서삼층석탑 天神像, 국립중앙박물관 경주출토 석탑면석 天神像(도14)과 같은 신라시대 팔부중상의 지물로 등장하여<sup>40)</sup> 사천왕상과 팔부중상의 지물이 혼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도 13〉 황룡사 西寺址  
탑신 남방증장천왕 실측도  
(문명대, 「신라 사천왕상의  
연구」에서 전재)



〈도 14〉 석탑면석 팔부중(天神像)  
부주, 통일신라 9세기,  
국립중앙박물관

〈표〉 통일신라 사천왕상 가운데 독고저 삼고저를 지물로 든 예

위 치	존명	지물
경주 감은사지 서삼층석탑 사리장엄구 외함	서방 광목천왕	독고저
경주 감은사지 동삼층석탑 사리장엄구 외함	남방 증장천왕	독고저
경주 원원사지 서삼층석탑	서방 광목천왕	독고저
경주 원원사지 동삼층석탑	서방 광목천왕	삼고저

四天王別像 持物 現況 ; 임영애, 2011, 앞의 논문, 38쪽 〈표 1〉 참조.

40) 韓載沅, 2006, 「統一新羅 石塔浮彫 八部衆 圖像과 配置 研究」 『美術史研究』 20, 202쪽.

장흥 보림사 보조선사탑	남방 증장천왕	금강저
의성 관덕동 삼층석탑	동방 지국천왕	독고저
남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서방 광목천왕	삼고저
경주 황룡사지 서사지 탑신	남방 증장천왕	삼고저
구미 도리사 금동사리함	서방 광목천왕	독고저
합천 백암리석등	동방 지국천왕	독고저
구례 화엄사 서삼층석탑	서방 광목천왕	독고저
국립경주박물관 승효곡사지 삼층석탑	남방 증장천왕	독고저
광양 중흥사지 삼층석탑	남방 증장천왕	독고저

④ 보검(寶劍)을 지물로 든 천왕상(도15)

마지막으로 양 손으로 보검을 들고 있는 천왕상은 전체높이 152cm, 폭 52cm, 상 높이가 141cm로 오른쪽에 무게를 실어 약간 왼쪽으로(向左) 기운 자세이다. 원형광배와 머리의 화관장식 등은 앞의 두 상과 유사하나 눈이 크고 광대뼈가 돌출한 얼굴이 개성적이다. 가슴에 걸친 흉갑은 두 개의 방형틀 안에 대칭적인 단추모양의 圓紋으로 단순하게 표현되었고 양 어깨를 덮은 갑옷(披膊)은 수평적인 평행 띠주름으로 처리되었다. 두 손으로 잡고 있는 보검은 손잡이 끝에 둥근 고리가 달린 환두대도 형태이며 양 팔에는 손목까지 腕當을 차고 있다. 요갑과 표고는 무늬 없이 단순하게 조각되었으며 치마 자락은 길게 경호를 두른 정강이 뒤로 늘어져 있다. 이 상에서도 체구에 비해 작은 두 발로 비스듬히 옆으로 누운 야차귀의 어깨와 엉덩이를 딛고 서있다.



〈도 15〉 보검을 든 사천왕상, 운문사 작업전, 경북 청도

사천왕상의 持物에 대해서는 경전마다 다르고 현존 유물들과 경전에 나타난 내용이 항상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sup>41)</sup> 그러므로 제작시기와 지역에 따라서 사천왕상

41) 심영신, 1997, 「통일신라시대 四天王像 연구」 『美術史學研究』 216, 13쪽 (표 1) 經典에 나타난 四天王의 方位·持物; 권강미, 2003, 앞의 논문, 65쪽 (표 6) 經典에 표현된 四天王의 持物 참조.

의 지물 표현에 적절한 변용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sup>42)</sup> 통일신라 사천왕상 지물에 대한 현황분석을 보면, 32구의 동방 지국천왕상 가운데 23구가 보검을 들고 있어<sup>43)</sup> 보검을 든 지국천왕상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사천왕상의 제작시기 문제

앞의 네 구의 사천왕상은 비례 면에서 몸통이 전체적으로 가늘고 두부에 비해서 신체가 길며 손발이 작다. 탄력이나 긴장감이 부족한 신체와 마치 현실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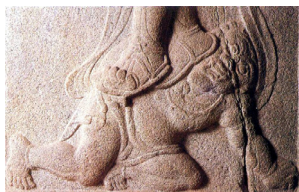
〈도 16〉 석굴암 북방  
다문천왕상, 통일신라  
8세기, 경북 경주

의 인간을 보는 듯한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얼굴 표현은 중대 신라 석굴암 사천왕상의 사납게 분노한 듯한 위협적이고 위엄이 넘치는 서역인과 같은 ‘沈目高鼻’의 용맹스러운 얼굴과 장대하면서도 활기차고 다부진 체구(도 16)와는 커다란 차이가 느껴진다.<sup>44)</sup> 운문사 사천왕상의 生靈座로 등장하는 야차귀 역시 부드럽고 온화한 모습으로 석굴암 사천왕상 야차귀(도17)의 동물적인 괴이함이 사라졌다. 갑옷의 표현도 평면적이고 단순하며 중대 신라 사천왕상에서 보이는 어깨의 피박이나 복갑 중앙의 獸頭 표현, 요갑 중앙정면에 늘어진 넓적한 형태의 前當의 표현이 생략되었고 요갑의 끝에 레이스처럼 섬세하게 장식되는 끝단도 단순하게 처리되었다. 다문천왕의 오른손을 뺀 표현은 석굴암 사천왕상을 모델로 했을 듯한데(도18), 수준급의 조각기술을 보이지만, 손바닥의 힘 있는 생동감을 나타내지는 못했던 것 같다.

42) 사천왕상의 도상이 경전상의 圖像儀軌에 의거하기 보다 模本을 따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임영애, 2011, 앞의 논문, 42~43쪽 참조. 통일신라 사천왕상에 대해서는, 문명대, 1980, 『新羅四天王像의 研究－韓國塔浮彫像의 研究－』 『佛教美術』 5, 10~55쪽; 2003, 『統一新羅 佛教彫刻史 研究(下) 원음과 적조미』, 예경, 232~278쪽.

43) 권강미, 2003, 앞의 논문, 65쪽 〈표 5〉 統一新羅 四天王別像 持物 現況 참조. 이 표를 보면, 통일신라 사천왕상의 동방 지국천왕상 32구 가운데 23구가 보검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44) 중국 문헌에서 ‘沈目高鼻’(안으로 움푹 들어간 눈과 높은 코)로 표현된 서역인들의 얼굴모습이 사천왕상 얼굴로 채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심영신, 1997, 앞의 논문, 31쪽 참조.



〈도 17〉 석굴암 서방 광목천왕상의 아차귀상, 통일신라 8세기 경북 경주



〈도 18〉 석굴암 북방 다문천왕상의 밖으로 뻗은 왼손, 통일신라 8세기, 경북 경주



〈도 19〉 쌍봉사 철감선사탑 북방 다문천왕, 통일신라 868년, 전남 화순



〈도 20〉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통일신라 867년경, 경북 봉화



〈도 21〉 보림사 보조선사탑 북방다문천왕, 통일신라 880년경, 전남 장흥



〈도 22〉 염거화상탑 북방 다문천왕, 통일신라 844년,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조각기법 면에서 주목되는 것은 보검을 든 사천왕상의 양 어깨를 덮은 갑옷(披膊)이 수평적인 평행 띠주름으로 처리된 점이다. 이것은 신라시대 불교조각에 널리 퍼져있던 표현기법으로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868년, 도19) 사천왕상의 갑옷, 철원 도피안사 철불좌상(865년)의 大衣, 봉화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867년경, 도20)의 대의, 장흥 보림사 보조선사탑(880년) 사천왕상(도20)의 갑옷표현에서도 발견된다. 또한 보림사 보조선사탑의 북방 다문천왕(도21)이 들고 있는 보탑



〈도 23〉 실상사 흥척대사탑  
통일신라 844-860년,  
전북 남원

의 형태는 운문사 사천왕상의 북방 다문천왕이 들고 있는 보탑과 매우 유사하다.

주지되는 바와 같이 나말여초의 승탑들은 왕실의 후원아래 國工이 제작하게 되므로<sup>45)</sup> 당시 중앙에서 활약하던 최고 수준의 석장이 참여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승탑조각에서 보이는 양식적인 차이는 지역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가 아니라 시대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된다. 보림사 보조선사탑 사천왕상(880년)에서는 9세기 전반의 傳 원주 흥법사지 염거화상탑(844, 도22)이나 남원 실상사 흥척대사탑(844~860년, 도23) 사천왕상에서 보이는 적절한 신체비례와 유연한 자세와는 달리, 두부가 작아지고 신체가 장신화되는 표현이 나타난다. 양감

이 줄면서 장신화되는 현상은 곡성 대안사 적인선사탑(861년) 사천왕상에서도 보이는데, 이와 같은 평면적이고 장신화되는 표현이 운문사 사천왕상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천왕상의 광배가 둥근 원형 양각선으로 표현되는 점은 보림사 보조선사탑 사천왕상과 운문사 사천왕상에서 공통적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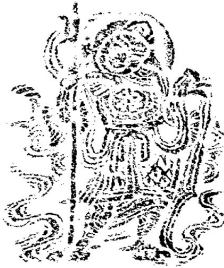
운문사 사천왕상의 편년을 위해 나말여초 승탑부조 사천왕상들의 도상과 양식을 살펴보면, 남원 실상사 수철화상탑(893년 이후, 도24) 사천왕상은 전체적으로 입체감이 줄었으며 두부가 크고 신체가 왜소해졌다. 갑옷의 표현이 도식적이고 얼굴에 개성이 없으며, 체구도 양감이 없이 평면적이고 위축된 모습이다.

또한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 사천왕상(883년, 도25)은 전체적으로 둔중해졌을 뿐 아니라 머리에 투구를 쓰고 있다. 고려초기가 되면 양평 보리사지 대경대사탑(930~939년대, 도26)처럼 얼굴이 커지고 단구형의 신체비례가 나타나며<sup>46)</sup> 곡성 대안사 광자대사탑(945) 사천왕상에서는 완전히 평면적 머리에 투구를 쓰고 하체가 항아리 같은 모습으로 표현되며 활과 화살이 지물로 등장하고 있다. 봉암사 지증대사탑(883년)이나 실상사 수철화상탑(893년 이후) 이후의 나말여초 승탑 사천왕상에서 보이는 조형적인 특징은 두부가 작고 체구가 장신화된 운문

45) 강삼해, 2006, 「나말여초 僧塔 塔身 神將像 연구」 『美術史學研究』 253, 90쪽.

46) 강삼해, 2006, 앞의 논문, 106~107쪽 참조.

사 사천왕상의 모습과는 다르다. 따라서 운문사 사천왕상의 제작시기는 지증대 사탑이나 수철화상탑 이전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도 24〉 실상사 수철화상탑 동방 지국천왕 탑본, 통일신라 893년, 전북 남원(문명대, 「신라 사천왕상의 연구」에서 전재)

〈도 25〉 봉암사 지증대사탑 동방 지국천왕 실측도, 통일신라 883년경, 경북 문경(문명대, 「신라 사천왕상의 연구」에서 전재)

〈도 26〉 보리사 대경대사탑 북방 다문천왕, 고려 930~939년, 경기도 양평,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 3) 사천왕상의 배치문제

사천왕상은 현재 작업전의 좌우 벽에 각각 2구씩 세워져 있다(도2). 1941년에 목조건물로 지어지기 이전 전탑 형식의 작업전이었을 때도 내부 중앙에는 석불 좌상이 안치되어 있었고 좌우벽쪽에 사천왕상이 2구씩 나뉘어 세워져 있었다고 한다.<sup>47)</sup> 오늘날 남아있는 한 장의 흑백사진을 보면(도5), 1962년 조사 때 주지스님의 증언대로 정면이 넓고 측면이 좁은 형태로<sup>48)</sup> 내부 공간이 넓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1962년 조사에서는 사진 상으로 이 건물이 흙이 아닌 석재로 건축된 것으로 추정하여 ‘모전석탑’일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sup>49)</sup>

흥미로운 점은 사진에서 보이는 장방형의 모전석탑형 건물을 받치고 있는 석조 기단 부분이다. 물딩의 흔적이 간취되는 긴 장대석의 기단이 모전석탑을 받

47) 1962년 조사 당시 주지스님의 증언을 확보하여 기록하고 있다. 홍사준, 앞의 논문, 12쪽 참조

48) 홍사준, 1962, 앞의 논문, 12쪽.

49) 홍사준, 1962, 앞의 논문, 12쪽.



〈도 27〉 분황사 모전석탑, 신라  
634년, 경북 경주

치고, 좁은 塔門의 上·下引枋에 화강암을 사용한 것이 보이는데, 이는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도27)이나 안동 조탑리 오층전탑의 석조 기단과 석재로 구성된 문비형태를 연상시킨다. 이와 같은 부분을 통해 작업 전이 여러 번 옮겨지고 개축되면서도 전탑의 원 형태를 부분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작업전 내부에 2구씩 나뉘어 세워져 있었던 사천왕상은 일반적으로 '사천왕 석주'로 불려 왔으나, 판석에 고부조된 이 사천왕상들이 건물을 지지하는 '기둥[柱]'의 성격을 가졌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 상들은 '사천왕상 부조' 또는 '석조사천왕상'으로 불려야 옳을 것이다. 이 상들은 이미 설계에 의해 크기가 정해져 절단되어 있는 네 개의 석판에 새겨졌고 부분적으로 훼손된 곳도 있으나 측면도 치석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사천왕상의 봉안을 통한 장엄의 효과 뿐 아니라 건축자재로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천왕상의 배치방법은 석탑의 초층 사방에 세워져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sup>50)</sup>와 석굴암의 경우처럼 본존불상이 봉안된 공간의 좌우 벽면에 두 구씩 배치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sup>51)</sup> 각 상의 높이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2구씩 쌍을 맞춰 마주 보는 배치가 적절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목탑의 四天柱나 익산 미륵사지 서탑의 心柱와 같은 전탑 내부의 중심기둥 역할을 하며 중앙의 동서남북에 세워져 사천주벽의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sup>52)</sup>

운문사 사천왕상 네 구가 어떤 모습으로 배치되어 있었는지는 상당히 의문이다. 여기서 고려해야할 점은 중대신라 8세기 중·후반부터 사천왕상이 석탑의 탑신 바깥쪽에 표현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sup>53)</sup> 이와 같은 변화는 신라 호국불교의

50) 김길웅, 1990, 앞의 논문, 65쪽.

51) 문명대, 2018, 앞의 논문, 93~94쪽.

52) 김영옥, 2020, 앞의 논문, 17~19쪽.

53) 임영애, 2011, 「신라 불탑 탑신(塔身) 부조상의 추이-금강역사에서 사천왕상으로-」 『先史와 古代』 35, 237~240쪽 참조.

기반이 되었던 『金光明經』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sup>54)</sup> 唐에서 귀국한 明朗의 文豆婁 비법의 設行이나 경주 四天王寺의 창건 등은 『금광명경』에 의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55)</sup> 이 경전은 7세기 중·반에 신라에 전래되어 유행하였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경주 감은사지 삼층석탑출토 금동사리기 외함(682년)의 사천왕상이나 경주 석장사지출토 소조사천왕상塼片은 이 시기 왕경 일대 퍼져있던 사천왕상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도28). 특히, 석장사지 전편은 뒷면이 편평하여 벽면을 장식하였거나<sup>56)</sup> 전탑의 탑신에 부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sup>57)</sup> 전각과 탑의 意匠 요소로서 사천왕상의 성격이 간취된다.



〈도 28〉 석장사지 소조사천왕상 塼片, 신라, 경북 경주



〈도 29-1〉 석조불감, 복제,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사진 심영신교수)



〈도 29-2〉 석조불감의 사천왕상, 복제,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사진 심영신교수)

54) 심영신, 1997, 앞의 논문, 6~12쪽 ; 임영애, 2011, 앞의 논문, 241쪽 ; 임영애, 2018, 앞의 논문, 50쪽 참조. 분황사 모전석탑(634년)이 건립되었을 때, 탑문 좌우에 '사천왕상'이 아닌 '금강역사'가 조성된 사실은 당시까지 신라 불교계에 사천왕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55) 이 때 사용된 금광명경은 隋代 579년에 寶貴 등이 譯出한 『合部金光明經』이 7세기 중·반에 전래되어 유행되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김상현輯, 1994, 「輯逸金光明經疏－金光明最勝王經玄樞 小引 元曉疏의 輯編－」 『東洋學』 24, 259~260쪽 ; 최연식, 2005, 「8세기 신라 불교의 동향과 동아시아불교계」 『불교학연구』 12, 247~248쪽 ; 김복순, 2008, 『新思潮로서의 신라 불교와 왕권』, 景仁文化社, 53쪽 참조.

56)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박물관, 1994, 『석장사지』, 48쪽.

57) 김지현, 2010, 「통일신라 佛塔의 四天王像과 그 의미」 『文物研究』 17, 86~87쪽 참조.



〈도 30-1〉 炳靈寺석굴 제 29감 입구 외벽 사천왕상



〈도 30-2〉 炳靈寺석굴 제 29감 입구 외벽 사천왕상



〈도 31〉 墓門 사천왕상, 唐 8세기,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중국의 경우, 남북조시대 이래 불교석굴의 입구 좌우에는 금강역사상이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북제시기 석탑의 탑문 옆에 삼지창을 든 천왕상이 표현된 예가 보인다(도29).<sup>58)</sup> 이 상은 무장형 천왕상은 아니지만, 이미 북제 때부터 석탑에 금강역사와 더불어 사천왕이 나타나는 점은 주목된다. 唐代에 이르러서 석굴 입구에 사천왕상이 나타나는 예도 보이는데, 甘肅省 永靖 炳靈寺 석굴 제 29감은 龕室 입구 외벽 좌우의 장방형 龕에 2구의 사천왕상이 조각되어 있다(도30).<sup>59)</sup> 또한 陵墓미술에 사천왕상이 표현된 예로서 섬서성 서안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하는 두 짝의 墓門의 좌우에 천왕상이 새겨진 예가 보인다(도31).<sup>60)</sup>

석탑의 탑문에 천왕상이 표현된 예로는 건립된 房山 雲居寺 석탑(唐 712년)의 탑문 좌우에 금강역사와 함께 천왕상이 조각된 것을 볼 수 있다(도32).<sup>61)</sup> 또 이와 유사한 예로서 산동성 제남 神通寺 석탑(唐 717년, 도33)과 방산 운거사의 또 다른 석탑(唐 722년) 탑문 좌우에 금강역사와 천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을 꼽을 수 있다.

58) 심영신, 1997, 앞의 논문, 16쪽 및 圖 6 ; Denise Patry Leidy and Donna Strahan, 2010, *Wisdom Embodied— Chinese Buddhist and Daoist Sculpture in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The Metropolitan Museum · Yale University Press, 83~84쪽 참조.

59) 甘肅省文物工作隊·炳靈寺文物保管所 編, 1989, 『中國石窟 永靖炳靈寺』, 文物出版社, 圖 137, 138 및 211쪽 도판해설, 241쪽 ; 권강미, 2001, 앞의 논문, 도 27 참조.

60) 심영신, 1997, 앞의 논문, 40쪽 圖 23-ab 참조.

61) 임영애, 2011, 앞의 논문, 233쪽 도 10 참조.



〈도 32〉 雲居寺 석탑 탑문 부조 사천왕상과 금강역사상, 唐 712년, 北京 房山(사진 엄기표교수)



〈도 33〉 神通寺 석탑 탑문 부조 사천왕상과 금강역사상, 唐 717년, 山東省 濟南(사진 엄기표교수)

이들 석탑의 부조를 통해서 탑신부의 탑문 좌우에 배치되던 금강역사의 자리에 사천왕이 대체되는 변화가 8세기초 무렵에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房山 石經山 정상에 위치한 당대 석탑에는 탑문 좌우에 천왕상이 조각되어 있는 것이 보인다(도34). 마침내 탑문의 좌우에 금강역사를 대신하여 천왕상이 배치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신라에서 사천왕상이 탑의 외부에 표현되기 이전에 이미 당에서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을 말해준다.<sup>62)</sup> 운문사의 前身인 대작갑사의 전탑은 이러한 변화의 추세 속에서 건립되었을 것이다.



〈도 34〉 房山 石經山 석탑 탑문 부조 사천왕상, 唐(사진 엄기표교수)

대작갑사의 전탑은 탑신 내부에 불상을 봉안할 정도의 공간이 마련되고 높이

62) 唐代의 석굴이나 석탑의 입구(탑문)에 표현된 천왕은 2천왕상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석굴이나 석탑의 문이 하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가 5척 이상 되는 사천왕상을 탑 내부 또는 외부에 배치할 수 있을만한 규모였을 것이다. 이 정도의 크기라면 현존하는 탑 가운데 분황사 모전석탑(634년)을 통해서 유추가 가능할 것이다(도27). 분황사 모전석탑은 사방의 탑문 입구 좌우에 화강암 판석에 부조된 8구의 금강역사상이 2구씩 1조로 끼워져 있고, 이 판석들은 탑문 위, 아래 설치된 화강암제 상·하인방과 함께 문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2매의 화강암 판석으로 만든 두 짝의 문을 달았다.

운문사 사천왕상이 분황사 모전석탑처럼 판석 2매가 한 조를 이루어 전탑 탑문의 좌우에 끼워져 있었다면, 높이가 비슷한 상이 짝을 이뤘을 것이다. 네 구의 사천왕상이 부조된 석판의 크기가 서로 다르지만, 높이가 비슷한 ① 보탑을 든 북방다문천왕(161cm, 도8)과 ② 화염보주를 든 천왕상(162cm, 도9) ③ 삼고저를 지물로 쥔 천왕상(151cm, 도12)과 ④ 보검을 든 동방 지국천왕상(152cm, 도14)이 한 조를 이룰 수 있다(①+②와 ③+④). 그렇다면, 북방 다문천(①)과 한 쌍을 이루는 화염보주를 든 상(②)이고, 삼고저를 든 천왕상(③)과 보검을 든 천왕상(④)이 한 쌍을 이루게 된다. 석굴암 사천왕상을 기준으로 사천왕상의 배치를 보면, 시계방향으로 동 - 남 - 서 - 북으로 돌게 되는데,<sup>63)</sup> 그렇다면, 화염보주를 든 천왕상(②)은 북방다문천왕과 한 조를 이루는 서방 광목천왕, 삼고저를 든 천왕상(③)은 동방 지국천왕과 한 조를 이루는 남방 증장천왕이 된다(표 2). 지물이 삼고저 또는 화염보주인 천왕상의 존명은 크기와 배치에 따라 각각 남방 증장천왕과 서방 광목천왕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앞의 논의에 의해 추정되는 운문사 사천왕상배치는 그림과 같다. 동방 지국천왕상과 쌍을 이루는 삼고저를 손에 쥔 남방 증장천왕상은 몸을 향우측으로 기울어 오른쪽에 있는 탑문을 향하는 자세를 보이며, 보검을 든 동방 지국천왕상은 오른쪽 다리를 향좌측으로 구부려 역시 왼쪽편에 있는 탑문을 향하고 있는 動的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 이렇게 한 조를 이루는 천왕상들은 전탑 초층탑신 남면과 북면의 탑문 좌우에 배치되고 그 위로 상인방이 올려져 건축적으로는 탑문의 테두리를 형성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작감사의 전탑에 이와 같은 천왕문이 설치되는 것은 경문왕 5년(865)에 탑이 보수되던 시기로 추정할 수 있다.

63) 문명대, 2000, 『吐舍山石窟』, 한국언론자료간행회, 238쪽 삽도 4-1. 토함산석굴 불상 배치도 참조

〈운문사 전탑 사천왕상 배치 추정도〉

서방 광목천왕 (지물: 화염보주)		북방 다문천왕 (지물: 보탑)
남방 증장천왕 (지물: 삼고저)		동방 지국천왕 (지물: 보검)

운문사 사천왕상이 전탑 남북면의 탑문 좌우에 배치되었다고 생각할 때, 전탑의 남, 북면에 탑문이 있었을 가능성이 상정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전탑과 모전석탑은 분황사 모전석탑의 예에서 보이듯이, 동서남북 사방에 탑문이 있거나 안동 조타리 오층전탑처럼 정면에 탑문이 한 개 있으며 탑문이 2개 있는 예는 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長安 大薦福寺에 景龍年間(707~710년) 세워진 4각 15층 博塔(小雁塔)은 남북방향으로 2개의 탑문이 있어 전탑의 탑문이 2개 있는 예를 보여준다.<sup>64)</sup> 대천복사는 측천무후가 高宗(649~683년 재위)의 추신을 위해 文明元年(684년)에 창건한 사원으로 長安 開化坊의 남쪽 절반을 차지하고 安仁坊까지 걸쳐있던 대규모 사찰이었다. 이곳에 설치된 翻經院은 義淨, 實叉難陀가 불전을 한역하고, 현종연간에는 金剛智가 밀교경전을 한역했던 곳이기도 하다. 雲花寺와 함께 화엄교학의 성지로 알려져 이 절의 전탑(소안탑)은 ‘화엄탑’으로도 불렸다.<sup>65)</sup> 장안의 대찰로 널리 알려져 있었을 뿐 아니라, 신라승려가 머물렀다는 기록도 전하고 있으며,<sup>66)</sup> 무종의 廢佛(842~845년) 때에도 廢寺를 면했

64) 이 탑은 원래 15층이었으나 上部 2층을 잃어 13층으로 남아있다. 宋·元·明代에 증수되었는데, 明 嘉靖34년(1555) 지진으로 갈라졌고 上部의 두 층이 倒壞되었는데, 그 후 재차 지진이 나서 원래의 모습대로 되었다고 한다. 小野勝年, 1989, 『中國隋唐長安·寺院史料集成』(解說篇), 東京: 法藏館, 3~4쪽.

65) 大薦福寺는 隋煬帝 태자시절 저택의 자리에 건립된 사원으로 처음에는 大獻福寺로 부르다가, 中宗이 즉위한 뒤에 天授元年(690)에 대천복사로 개칭되었다. 절에는 吳道子를 비롯하여 張瑑, 畢宏 등, 名家의 벽화가 많았고, 광대한 境界과 장려함으로 유명하였다. 小野勝年, 1989, 앞의 책(史料篇), 3쪽.

66) 일본승례승 圓仁이 長安에서 만난 스무살의 중국 승려는 대천복사에서 신라승려를 侍奉해서 상좌승(師匠)이 되었는데, 폐불기에 新羅僧籍에 올라 그 절에서 살 수 있었으나, 그를 신라승려로 알고 官家에서 신라로 추방하려고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小野勝年,

으므로 이후 長安을 여행하는 신라 승려들은 반드시 이곳을 방문하여 배관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대천복사의 전탑 형식이 신라불교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대작갑사 전탑의 형태 유추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2. 석불좌상의 현상과 제작시기

### 1) 석불좌상의 현상

작압전의 보존불로 봉안되어 있는 석불좌상(도34)은 전체높이 132cm로 크기가 작은 편이므로, 현재 석조 받침대를 만들어 그 위에 불상을 올려놓았다. 석불좌상에는 그동안 호분이 두껍게 칠해져 있어 원래의 모습을 알아 볼 수 없었다. 2007년 호분을 벗겼으나, 심하게 훼손된 상태가 드러나게 되어 얼굴과 몸체 일부를 보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행히도 광배와 대좌는 원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이 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도 35-1〉 운문사 작압전 석불좌상(보수전), 경북 청도



〈도 35-2〉 운문사 작압전 석불좌상의 대좌

먼저, 석불좌상의 광배(도35-1)는 높이 90.5cm로 전체적으로 매우 단순한 형태를 보인다. 광배 두광부 연화문의 조각이 얇고, 두광과 신광의 外緣은 양각된

1989, 『入唐求法巡禮行記の研究』 卷4, 法藏館, 160~161쪽.

띠모양의 2중원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피어오른 화염문이 새겨진 형태이다. 대좌(도35-2)는 두 개의 석재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화문이 둘러진 양련석과 이를 받치는 3단 6각의 받침석이 하나의 돌이고, 낮은 중대석을 받치고 있는 3단 6각의 중대받침, 그리고 복련석과 6각의 하대 받침석이 하나의 돌로 이루어져 있다. 상대 양련좌의 복엽연판에는 여의두문 형태의 꽃머리 장식이 3개 새겨져 있고 중대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다.

석불좌상은 높이 62cm로 풍화와 磨耗 정도가 석조사천왕상과 달리 매우 심한 상태이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석불좌상의 石質이 사천왕상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재료 면에서 보아도 사천왕상과 같은 시기의 작품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다. 또한 앞에서 보았던 1935년 사진의 磚壁 좌습지붕의 전각 안으로 옮겨지기 전까지 일정 기간 노천에 방치되었거나 풍화가 진행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 2) 석불좌상의 제작시기 문제

석불좌상의 제작시기를 추정하기 위한 단서는 높이 약 41cm의 육각대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신라하대 9세기에 유행했던 석불좌상의 대좌는 팔각을 기본으로 한다.<sup>67)</sup> 나말여초기에도 육각 대좌가 드물게 보이는데, 금강산 정양사 석불좌상(도36)과 여주 도곡리 석불좌상의 육각대좌가 그 예이다. 그런데 나말여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생각되는 이 불상들의 육각대좌는 정육각의 중대석이 매우 높고 육중하며 각 면에 새겨진 眼象에 신장상 등이 조각되어 있다. 이에 비해서 운문사 석불좌상의 옆으로 긴 육각대좌는<sup>68)</sup> 중대석이 낮고 장식이 없는 단순한 형태를 보인다. 육각의 대좌는 원주 法泉寺 석조공양보살좌상의 대좌, 김제 金山寺 석조연화대좌(도37), 남원 萬福寺址 석조대좌와 같은 고려 중기 11세기 중엽에서 후반의 조각에서 보이고 있어 고려중기에 와서 유행한 것으로 생각된다.<sup>69)</sup> 운문사 석불좌상의 대좌는 이들 11세기 중·후반의 육각대좌에

67) 이밖에도 신라하대부터 사각형 대좌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고려초기 高達寺址 석조대좌와 같은 방형대좌가 전해온다. 최성은, 2013, 『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 일조각, 91~94쪽 참조.

68) 대좌 하대 받침의 육각형의 한번 길이는 정면이 45cm, 좌우면은 31cm(向左 앞쪽면)에서 38cm(向左 뒷면), 32.5cm(向右 앞쪽면), 33.5cm(向右 뒷쪽면)의 각각 다른 치수를 보인다.

69) 최근 발굴된 화천 계성사지에서 육각건물지가 발견된 것도 고려시대 불상의 육각대좌와 관

비해 장식이 생략된 단순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제작시기가 11세기보다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도 36〉 정양사 석불좌상,  
나말여초, 강원도 회양



〈도 37〉 금산사 석조연화대좌,  
고려 11세기, 전북 김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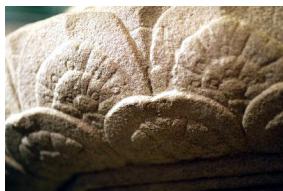


〈도 38〉 불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통일신라 9세기, 경남 창원



〈도 39〉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측면, 고려 10세기, 충북 괴산

런해서 참고가 된다.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9, 「화천 계성리사지 발굴 자문회의 자료집」.



〈도 40〉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상대 양련좌 연판부분, 통일신라 9세기 중엽, 대구광역시 동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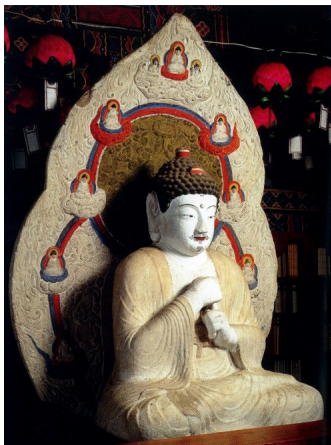
〈도 41〉 석조대좌의 양련석, 고려시대, 경기도 안성



〈도 42〉 승가사 석조승가대사상, 고려 1024년, 서울 구기동

대좌 각부의 구성 면에서 운문사 석불좌상의 대좌는 삼단의 받침석이 대좌의 중대석을 받치고 있으나 통일신라 9세기 후반 석불좌상의 대좌는 대부분 중대석과 삼단의 받침 사이에 밖으로 돌출한 괴임석이 있다(도38, 39). 이 괴임석이 운문사 석불좌상의 대좌에서는 생략되어 구조적으로 단순하다. 또한 운문사 석불좌상 상대 양련좌는 정면에는 연화문으로 장식되고 좌우측면과 뒷면은 연화문 아래에 雲紋이 새겨져 있는 점이 독특하다. 대좌 연판에는 세 개의 꽃머리 장식이 서로 맞물린 如意頭文 형태의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이것은 신라시대와 고려초기로 편년되는 대구 동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창원 불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국립중앙박물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봉화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괴산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등의 상대 양련좌의 연판에서 보이는, 연판의 안쪽에서부터 꽃잎이 점차 넓어져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되는 형태(도40)와는 차이를 보인다. 꽃잎 모양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운문사 불상의 대좌 연판에 보이는 세 개의 꽃잎이 서로 맞물린 여의두문은 중국에서는 오대 오월기의 經函의 문양을 비롯해서 북송대 공예품에서 보이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중기 11세기 무렵에 처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안성 낙원공원 석조대좌편(도41)과 서울 승가사 석조승가대사상의 광배(1024년, 도 42)는 여의두문이 표현된 이 시기 석조물의 예이다.<sup>70)</sup>

70) 최성은, 2017, 「삼각산 僧伽寺 석조승가대사상 小考」 『보조사상』 49.



〈도 43〉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통일신라 9세기 중엽, 대구광역시 동구  
〈도 44〉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고려 10세기 충북 괴산



〈도 45〉 미면사지 석조광배, 고려, 경북 문경  
〈도 46〉 대승사 미륵암지 마애미륵불좌상, 고려시대, 경북 문경

운문사 석불좌상의 광배는 化佛이나 비천, 공양상, 초화문 등의 장식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로 간단하게 융기된 두 줄의 동심원 띠로 이루어진 두광·신광과 그 외연을 둘러싼 화염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동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도 43)이나 국립중앙박물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괴산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도44)과 같은 신라하대와 고려초기 불상 광배의 화려한 장식적 요소가 사라진 단순한 형태의 광배라고 할 수 있다. 이 광배처럼 이중의 동심원이 강조된 형태의 광배로는 고려중기 11~12세기작으로 추정되는 충주 미면사지출토 석조광배(도45)를 꼽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두광부와 신평부에 초화문이 가득 부조되어 있다.<sup>71)</sup> 문경 대승사 미륵암지 마애미륵불좌상(도46)의 경우, 두 줄의 동심원과 그 외연을 감싼 화염문으로만 이루어진 광배가 표현되었는데, 조성시기는 역시 고려 11세기 후반에서 12세기 전반 무렵으로 추정된다.<sup>72)</sup>

신라하대와 고려초기 불상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볼 때, 운문사 석불좌상을 작업사 전담이 보수되고 석조사천왕상이 조성된 신라하대 경문왕 5년(865) 무렵이나 작업사가 운문사로 중창되었던 고려 태조 20년(937) 무렵으로 편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광배와 대좌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해낼 수 있는 석불좌상의 제작 시기는 언제쯤일까? 아마도 그것은 원운국사 학일이 운문사로 내려와서 인종 7년(1129)부터 인종 22년(1144) 입적할 때까지 머물렀던 12세기 전반일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시기 운문사는 寺勢에 있어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풍요로웠으므로 사원이 크게 중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석불좌상은 이 시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3) 석불좌상의 배치문제

오늘날 경북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전해오는 신세동 칠층전탑(범홍사 전탑), 동부동 오층전탑(原 7층),<sup>73)</sup> 조탑동 오층전탑(도47) 등, 여러 전탑들은<sup>74)</sup> 모두 이

71) 최성은, 2019, 「문경 계림령의 신라말 고려시대 석불에 대한 고찰」 『東國史學』 67, 230~235쪽 참조.

72) 최성은, 2019, 앞의 논문, 227~230쪽 참조.

73) 『永嘉誌』를 비롯한 여러 문헌에 언급된 法興寺전탑과 法林寺전탑은 각각 신세동 전탑, 동부동 전탑으로 명칭수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 박홍국, 1998, 앞의 논문, 91쪽 ; 신용철, 2009, 앞의 논문, 93쪽 각주 2.

74) 전탑에 대해서는, 고유섭, 1993, 「조선의 전탑에 대하여」 『韓國美術史及美學論叢 高裕燮全集』 3, 通文館 ; 秦弘燮, 1960, 「安東 錦溪洞 化人寺址 塔塔」 『美術資料』 창간호, 1~5쪽 ; 이능기, 1994, 「安東地域 塔塔의 造形分析」 『安東文化研究』 8 ; 박홍국, 1998, 『한국전탑연구』, 학연문화사 ; 천득엽, 1998, 『전탑』, 대원사 ; 임세권, 2004, 「한국 전탑의 전래와 변천과정」 『美術史學研究』 242:243 ; 송준태, 2008, 「한국 전탑에 대한 연구—지



〈도 47〉 조탑동 오중전탑, 통일신라,  
경북 안동

지역의 裨補를 목적으로 신라하대 9세기 중·후반부터 고려초기 사이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75)</sup> 안동에서 남쪽으로 멀리 떨어진 청도지역 오작갑의 중심사찰이었던 대작갑사의 전탑 건립이 애초부터 이 지역의 비보와 방어에 목적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학일선사가 운문사에 주석하던 무렵은 道諫(827~898년)에 대한 현창의 움직임이 고려왕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났던 때였다.<sup>76)</sup>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학일선사와 그 주변의 僧俗은 운문사에 있던 대작갑사 전탑을 청도 일대의 비보사탑으로 여겨 새롭게 보수와 정비를 시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전탑은 바닥면의 크기와 높

이조절이 가능하여 대형탑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석탑에 비해 수명이 짧고 수리를 자주 해야 유지관리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sup>77)</sup> 그러므로 고려초 보양조사의 중창 때 전탑이 수리되었다고 해도 거의 2백년이 지난 뒤, 학일선사가 운문사로 하산하였을 당시에는 전탑이 황폐해져 있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탑 탑문의 좌우에 사천왕상이 배치되고 그 중앙에 석문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현재 사천왕상의 法量을 바탕으로 최소 폭을 계산해서 전탑의 한 면의 폭이 최소 5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런 규모의 전탑이 축조된 예로서 조선시대 1576년 파괴된<sup>78)</sup> 안동시 옥동의 임하사 칠층전탑을 꼽을

역적 편중특성과 축조위치 환경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용철, 2009, 「경북 안동지역 佛塔의 편년과 특징」 『한국민족문화』 34, 93~95쪽 참조.

75) 안동지역 전탑이 비보를 목적으로 건립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자료로서 고려 태조 때 건립된 安養寺 7층전탑이 비보설에 의해 건립되었다는 기록을 꼽을 수 있다(新增 東國輿地勝覽 卷 10 衿川縣 佛宇條). 신용철, 2009, 「『永嘉誌』를 통해 본 안동 불탑의 전승과 그 의의」 『美術史學研究』 264, 65~66쪽, 72~77쪽, 83쪽 참조.

76) 인종은 도선을 先覺國師로 추증하고 예종은 崔惟淸에게 명하여 도선의 비명을 친술하게 하였으며(1150년), 명종대에 비가 건립된다(1172년). 신용철, 2009, 앞의 논문, 80쪽.

77) 신용철, 2009, 앞의 논문, 82쪽 참조.

수 있다. 이 전탑은 탑지의 한변이 5.6m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였음이 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났다.<sup>79)</sup> 대작감사 전탑도 군사적·전략적 요충지에 세워진 만큼 사찰의 위용을 드러내는 대형탑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정도 규모의 전탑이라면 탑신 내부의 공간도 불상을 봉안할 정도의 넉넉한 규모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永嘉誌』에는 현재 전하지 않는 안동 玉山寺 전탑(月川博塔) 내부에 불상이 봉안되어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sup>80)</sup> 그러나 발굴조사에서 드러난 옥산사 전탑지 기단의 한 변은 2.5m에 불과했다.<sup>81)</sup> 따라서 안동 조탑동 오층전탑(도47)처럼 초층 탑신부에 적당한 크기로 탑문을 만들고 그 내부에 불상을 안치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운문사 전탑의 경우는 133cm 높이의 석불좌상이 탑 내부에 봉안되어 있었다면, 탑의 크기가 임하시지 전탑 정도의 규모였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석불좌상이 탑 안에 봉안되어 있었는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전탑이 붕괴되고 난 뒤, 사천왕상과 다른 전각에 있던 석불좌상을 함께 옮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전탑의 옥개 낙수면에는 안동 신세동(법흥사지) 칠층전탑과 동부동 오층전탑에서 처럼 기와가 올려져 있었을 것이다.<sup>82)</sup> 고려초에 세워진 安養寺 전탑에도 ‘벽돌로 7층을 쌓고 기와로 덮었다’는 기록이 있어,<sup>83)</sup> 신라하대·고려초기 전탑 옥개 상부에 葺瓦하는 것이 전탑 건축공정의 일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뒷날 전탑이 무너져 모전석탑 형태로 세울 때, 외층 지붕을 올린 것은 이전의 전탑 분위기를 내려고 했던 것일 가능성이 있다.

78) 안동부사 梁喜(1515~1581)에 의해 훼손되었다고 전한다. 『永嘉誌』 권6, 古塔 臨河寺輒塔條.

79) 임하시 전탑지에서 출토된 연화문전들과 초화문전(팔메트文)은 뛰어난 장식성을 보여준다. 안동대학교 박물관, 1988, 『임하시전탑지』; 박홍국, 1998, 앞의 책, 97~99쪽 참조.

80) “在瓮泉驛玉山之北五層中有石佛” 權紀 外, 1608, 『永嘉誌 古塔條』; 秦弘燮, 1960, 「安東 錦溪洞 化人寺址 博塔」 『美術資料』 창간호, 5쪽; 이능기, 1994, 「안동지역 전탑의 조형성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9쪽 표 9 참조.

81)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984, 『開目寺博塔址, 傳 玉山寺塔址 發掘調査報告』, 安東地區古蹟調査 報告書 제 4·5篇, 23쪽.

82) 박홍국, 1998, 앞의 책, 91쪽; 신용철, 2009, 앞의 논문, 18쪽 참조.

83) “... 寺之南有塔累輒七層盖以瓦 ...”,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0, 衿川縣 佛宇條.

#### IV. 맺음말

지금까지 운문사 작업전에 봉안된 석불좌상과 석조사천왕상은 고려 태조의 후원으로 보양선사에 의해 운문사가 중창될 때 조성되었다고 여겨져 왔다. 그것은 나말여초 불교조각이 지역마다 다양하여 양식적 편년기준이 모호하므로 『삼국유사』 「보양이목」조에 실린 운문사의 중창 기사가 석불좌상과 석조사천왕상 편년의 근거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동안 사천왕상의 연구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고, 고려시대 불교조각에 대해서도 조금씩 연구가 개선되어 이전에 비해 새로운 자료가 축적되어 왔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운문사 상들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와 분석이 가능해졌다. 이들을 근거로 양식적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먼저 운문사 작업전 안에 봉안되어 있는 석조사천왕상은 그 조형적 특징과 지물의 검토를 통해 작업사의 전답이 보수되는 신라하대 경문왕 5년(865) 무렵에 조성되어 전답 초층탑신 남북면의 탑문 좌우에 두 구씩 배치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석불좌상은 2007년 보수되어 원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으나 광배의 문양과 육각대좌의 구조와 형태의 분석을 통하여 원응국사 학일이 운문사에 주석했던 고려중기 12세기 전반에 조성된 것으로 편년을 시도하였다. 석불좌상과 석조사천왕상은 석질이 달라서 풍화와 마멸의 정도가 다른데, 동시기에 제작되어 전답 안에 봉안된 것이 아니라, 석불좌상은 사천왕상에 비해 상당한 시차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보았다. 또한, 석조사천왕상이 설치될 수 있는 규모의 전답은 현존하지 않으나 안동 임하사 전답과 같은 큰 규모의 전답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목조 작업전이 지어지기 전의 전답형의 건물에 와즙지붕을 올린 것은 신라하대·고려초기 전답의 옥개에 즙화한 것을 차용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와 같은 추론은 그간의 여러 사천왕상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하였으나, 가설을 세우는 과정에서 미진한 점도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 운문사 작업전의 석불좌상과 석조사천왕상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다각적 검토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사료 및 자료

『三國遺事』, 『永嘉誌』  
『雲門寺志』(1718) 1977 亞細亞文化社

### 2. 단행본 및 저서

문명대, 2000, 『吐舍山石窟』, 한국언론자료간행회.  
문화재청, 2007, 『雲門寺 大雄寶殿 修理 實測 報告書』.  
박홍국, 1998, 『한국전답연구』, 학연문화사.  
윤용진 외, 1993, 『嘉瑟岬寺址 地表調査 報告書』, 慶北大學校博物館·淸道郡.  
임세권, 1988, 『임하사전답지』, 안동대학교 박물관.  
운문사지 간행위원회, 2018, 『운문사지』, 성보문화재연구원.  
천득염, 1998, 『전답』, 대원사.  
최성은, 2013, 『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 일조각.  
허홍식, 1986, 『高麗佛教史研究』, 일조각.

### 3. 논문

김윤근, 2001, 「麗代の 雲門寺와 密陽·淸道 地方」 『한국 중세 영남불교의 이해』, 영남대학교출판부.  
곽승훈, 2014, 「고려시대 운문사 창건연기의 변천과 역사적 의의」 『韓國史學史學報』 30.  
권강미, 2003, 「統一新羅 四天王像 研究」 『文物研究』 7.  
금기웅, 1990, 「雲門寺 鵲鴨殿出土 舍利具에 대하여」 『慶州史學』 9.  
김복순, 2008, 『新思潮로서의 신라 불교와 왕권』, 景仁文化社.  
김영옥, 2020, 「운문사 전답의 구조와 석조여래좌상 및 사천왕석주의 배치연구」 『大丘史學』 140.  
김지현, 2010, 「통일신라 佛塔의 四天王像과 그 의미」 『文物研究』 17.  
문명대, 1980, 「新羅四天王像의 研究－韓國塔浮彫像의 研究－」 『佛教美術』 5.  
문명대, 2018, 「운문사(雲門寺) 작감전(鵲岬殿) 석조(石造) 석가불좌상(釋迦佛坐像)과 사천왕상(四天王像)의 도상연구」 『강좌미술사』 50.

- 朴待南, 李松蘭, 2010, 「중국 隋 仁壽 4년 神德寺 舍利具 연구」 『한국고대사탐구』 6.
- 裴象鉉, 1997, 「高麗時代 雲門寺의 寺院田 經營」 『한국중세사연구』 4.
- 신용철, 2009, 「『永嘉誌』를 통해 본 안동 불탑의 전승과 그 의의」 『美術史學研究』 264.
- 신용철, 2009, 「경북 안동지역 佛塔의 편년과 특징」 『한국민족문화』 34.
- 심영신, 1997, 「통일신라시대 四天王像 연구」 『美術史學研究』 216.
- 오세덕, 2017, 「운문사의 遺物과 記錄을 통해 본 伽藍의 변화상」 『新羅文化』 50.
- 李雲成, 1964, 「推火 奉聖寺에 대하여」 『考古美術』 5권 9호.
- 이능기, 1994, 「安東地域 博塔의 造形分析」 『安東文化研究』 8.
- 이재철, 2012, 「『삼국유사』 ‘보양이목’조의 검토」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33.
- 李智冠, 1996, 「淸道 雲門寺 圓應國師 碑文」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高麗篇 3)』, 伽山佛敎文化研究院.
- 임세권, 2004, 「한국 전탑의 전래와 변천과정」 『美術史學研究』 242·243.
- 임영애, 2010, 「북방 다문천의 보탑 도상 해석: 도상 형성 원인과 원·고려 이전의 양상」 『미술사와 시각문화』 9.
- 임영애, 2011, 「'석굴암 사천왕상'의 도상과 불교경전」 『강좌미술사』 37.
- 임영애, 2011, 「신라 불탑 탑신(塔身) 부조상의 추이-금강역사에서 사천왕상으로-」 『先史와 古代』 35.
- 秦弘燮, 1960, 「安東 錦溪洞 化人寺址 博塔」 『美術資料』 창간호.
- 최성은, 2003, 「開泰寺 石造三尊佛立像 研究-새로운 統一王朝 高麗의 出現과 佛敎 彫刻-」 『미술사논단』 16·17.
- 최성은, 2017, 「삼각산 僧伽寺 석조승가대사상 小考」 『보조사상』 49.
- 최성은, 2019, 「문경 계림령의 신라말 고려시대 석불에 대한 고찰」 『東國史學』 67.
- 최연식, 2005, 「8세기 신라 불교의 동향과 동아시아불교계」 『불교학연구』 12.
- 최웅천, 2018, 「雲門寺 소장 불교공예품의 현황과 특징 고찰」 『講座美術史』 50.
- 한정호, 2011, 「통일신라시대 蠟石製舍利壺의 발생과 전개에 대한 고찰」 『古文化』 77.
- 洪思俊, 1962, 「雲門寺의 鵲鴨殿」 『美術資料』 5.

## ABSTRACT

## A Study on Stone Images of Seated Buddha and Four Guardian Kings Enshrined in Jakapjeon Hall at Unmunsa Temple

Choe, Song-eun

Stone Images of Seated Buddha and Four Guardian Kings enshrined in the Jakapjeon Hall(鵲鴨殿) at Unmunsa Temple(雲門寺) have long been regarded as sculptures of early Goryeo period from around AD 937 under the patronage of the First King of Goryeo(Wang Geun). According to *Samgukyusa*(三國遺事) monk Boyang(寶壤), returning from Tang China, stayed at a temple called Bongseung-sa, and happened to meet the First King(Taejo) of Goryeo, whom Boyang gave a clever scheme to defeat enemy troops. Later Boyang moved to Daejakgap-sa and reconstructed the five-storied brick-pagoda, which was most likely erected in the late Unified Silla period and destroyed during the war of Later Three Kingdoms' period. At that time, Wang Geun accomplished the unification of the Later Three Kingdoms, and presented the new temple name of 'Unmunseun-sa(雲門禪寺)' and five hundred 'geul(結)' of paddy and field to support the temple.

In 1987, however, sarira reliquaries were excavated beneath the stone Buddha image of Jakapjeon, which is now a wood and tiled roof building, although its ancestral form was most likely brick pagoda. Among the reliquaries, a stone pot bears an inscription of the year AD 865 of the Unified Silla period as the repaired date of the pagoda, which indicates that the brick pagoda was first erected earlier than AD 865.

Comparing the stone Four Guarding King images with those of the ninth century images carved on the surface of monk sarira pagodas, it was

discovered that the stone Four Guarding King images of Unmunsa were most likely made no earlier than AD 860 and no later than AD 880 of the Unified Silla period. Since two of the Four Guardian Kings are 151-152cm in size and two of them are 161-162cm in size, it can be presumed that a pair of similar sizes were placed on both sides of the entrance gate on the first floor of the brick pagoda: Guardian King of the East and South on the south wall and those of the West and the North on the north wall of the pagoda.

Although the face of the stone Buddha image was heavily repaired and does not convey the original facial expression, its halo and pedestal still show the original condition of the image. The stone pedestal of six angles, a rare form in the late ninth and early Goryeo period, doesn't have the buttress platform supporting the middle part of the pedestal, which is common of pedestals from the late ninth and early Goryeo period. Besides, the pedestal of Unmunsa, compared with the Goryeo stone hexagonal pedestals of Goryeo 11th century, lacks exquisite quality. A rather simply designed halo, it has two embossed circles encircled by a flame, while the halos of the stone Buddha images of the late ninth and early Goryeo period have decorative designs of incarnation Buddha images and beautiful plants. Stylistic aspects of the halo and the pedestal of the stone Buddha image of Uumunsa demonstrate that this image can be dated to the first part of the 12th century, when Goryeo court supported Unmunsa probably because of the eminent monk Hakil, who had been in King Injong's confidence and left capital Gaeseung to retire and reside at Unmunsa until his death.

Key Words : Unmunsa, Five-storied brick pagoda, monk Boyang, Jakapjeon, Four Guardian Kings, Stone Buddha image, monk Hakil

논문 투고일 : 2020. 11. 16. 심사 완료일 : 2020. 12. 9. 게재 확정일 : 2020. 12. 15.